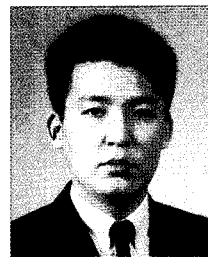


한국주거의 재발견

ㄱ자형 주거를 중심으로 본 영남지역 주거문화 특성



유 기 원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사 졸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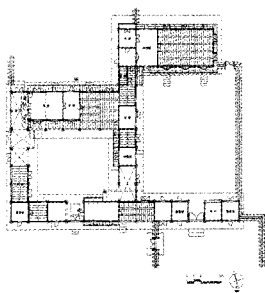
영남지역 주거의 특성 중 가장 두드러진 점을 꼽는다면 ㄱ자형의 주거일 것이다. ㄱ자형의 배치는 영남지역에서만 보이는 독창적인 배치법은 아니다. 지역과 건축형식을 막론하고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된 배치 방법이다. 그러나 영남지역, 특히 안동과 그 주변의 지역에서는 폐쇄적인 안마당을 가진 ㄱ자형 주거가 매우 높은 빈도로 나타나고 있다. 본 글에서는 타 지역과 구별되는 영남지역의 주거문화 특성인 폐쇄적 안마당을 가진 ㄱ자형 주거를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 ㄱ자형 주거의 지역적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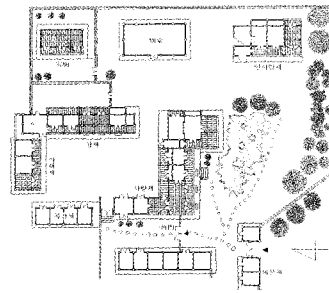
영남지역의 주거에서는 같은 ㄱ자형의 배치를 보이는 주거라도 1동으로 이어진 ㄱ자형의 배치법이 있는가 하면, 2~4동으로 이루어진 튼ㄱ자형의 배치법도 보이고 있다. 동의 수가 적을수록 폐쇄적인 안마당을 갖게 되는데, 국가지정(보물 및 중요민속자료) 주거 문화재를 살펴보더라도 1동으로 이루어진 ㄱ자형의 주거는 안동을 중심으로 한 소백산맥의 이남 및 낙동강의 동쪽 지역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¹⁾ 즉 경북의 북동부 지

역에서는 폐쇄적 성격의 ㄱ자형 주거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반해 경남 및 경북의 남서부 지역에서는 개방적 성격의 ㄱ자형 주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적 특성은 안채의 형태를 비교해 보면 더욱 대비되는데, 같은 튼ㄱ자형의 주거라도 폐쇄적 성격의 ㄱ자형 주거는 안채가 ㄷ자형이 많으며, 개방적 성격의 ㄱ자형 주거는 一자형이나 ㄱ자형이 주를 이루고 있다.

현재까지는 이런 지역적 차이에 대해 지형과 기후와 같은 자연환경적인 요소나 외적과 산짐승에 대한 대응방식으로서 해석하고 있다.²⁾ 이와 같은 선학들의 직관적이면



안동 양진당(도면출처 : 김화봉)



안동 양진당(도면출처 : 김화봉)

▲ [그림 1] ㄱ자형과 튼ㄱ자형의 비교

1) 김화봉, 『조선시대 안동문화권의 ‘돌집’에 관한 연구』,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1999.2, pp.20~23 및 신영훈, 『한국의 살림집, 열화당』, 1983, pp.141~177
2) 신영훈, 『한국의 살림집, 열화당』, 1983, p.146 및 김일진, 『옛집에 담긴 생각』, (주)청구, 1996, p.21

한국주거의 재발견

[표 1] 국가지정 문화재 중 영남지역 주거의 배치 형태

번호	지역	명칭	종목	배치/안채	번호	지역	명칭	종목	배치/안채
1	경주	양동 근암고택	중민 제76호	튼ㄷ/ㄱ	31	경북	임청각	보물 제182호	用
2		양동 서백당	중민 제23호	□	32		송소종택	중민 제203호	튼ㄴ/—
3		교동 최씨고택	중민 제27호	튼ㄴ/ㄷ	33		양진당	보물 제306호	□
4		양동 사호당고택	중민 제74호	튼ㄴ/ㄷ	34		충효당	보물 제414호	□
5		김호장군 고택	중민 제34호	튼ㄴ/—	35		의성김씨종택	보물 제450호	巳
6		양동 상춘헌고택	중민 제75호	튼ㄴ/ㄷ	36		하회 주일재	중민 제91호	튼ㄴ/—
7		관기정	보물 제442호	□	37		안동 법흥동 고성이씨 탐동파 종택	중민 제185호	□
8		양동 두곡고택	중민 제77호	튼ㄴ/ㄷ	38		하회 풍산류씨 작천택	중민 제87호	—
9		양동 낙선당	중민 제73호	튼ㄴ/ㄷ	39		예안이씨 충효당	보물 제553호	□
10		향단	보물 제412호	□	40		하리동 일성당	중민 제178호	□
11		무침당	보물 제411호	튼ㄴ/ㄷ	41		의성김씨 율리종택	중민 제181호	□
12		양동 수졸당	중민 제78호	튼ㄴ/ㄱ	42		소호헌	보물 제475호	모름
13		양동 이향정	중민 제79호	튼ㄴ/ㄱ	43		영덕 충효당	중민 제168호	□
14		경북	독락당	보물 제413호	□		44	영천 정용준씨 가옥	중민 제107호
15	구미	쌍암고택	중민 제105호	튼ㄴ/ㄷ	45	영천 만취당	중민 제175호	튼ㄴ/ㄷ	
16	대구	달성 삼가헌	중민 제104호	튼ㄴ/ㄷ	46	매산고택 및 산수정	중민 제24호	□	
17		달성 조길방 가옥	중민 제200호	튼ㄷ/—	47	울현동 물체당	중민 제174호	□	
18	봉화	송석헌	중민 제249호	□	48	예천	의성김씨 남약종택	중민 제248호	□
19		설매리 3겹 까치구멍집	중민 제247호	—	49		예천권씨종택	중민 제201호	□
20		가평리 계서당	중민 제171호	□	50		예천권씨증가 별당	보물 제457호	□
21		거촌리 쌍백당	중민 제170호	□	51	의성 소우당	중민 제237호	튼ㄴ/ㄱ	
22		해저 만회고택	중민 제169호	튼ㄴ/ㄷ	52	청도 임당리 김씨고택	중민 제245호	튼ㄴ/—	
23		상주 양진당	보물 제1568호 (튼ㄴ)/ㄷ	53	청도 운강고택 및 만회정	중민 제106호	튼ㄴ/—		
24	안동	하회동 하동고택	중민 제177호	□	54	청송 창양동 후송당	중민 제173호	튼ㄴ/—	
25		오류헌	중민 제184호	튼ㄴ/ㄱ	55	청송 청운동 성천택	중민 제172호	□	
26		하회 북촌택	중민 제84호	□	56	송소고택	중민 제250호	튼ㄴ/—	
27		오미동 참봉택	중민 제179호	□	57	경남	거창 정운선생 가옥	중민 제205호	튼ㄴ/—
28		가일 수곡고택	중민 제176호	튼ㄴ/ㄷ	58		창녕 술정리 하씨 초가	중민 제10호	—
29		하회 남촌택	중민 제90호	소실	59		함양 허삼돌 가옥	중민 제207호	튼ㄴ/ㄱ
30		권성백 고택	중민 제202호	□	60		함양 일두고택	중민 제186호	튼ㄴ/—
						합천 묘산 묵와고가	중민 제206호	튼ㄴ/ㄱ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참조

서도 경험적인 해석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만한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미약하나마 답사를 통해 느낀 점을 나름대로 제시함으로써 영남지역 □자형 주거의 특성을 밝히는데 보탬이 되고자 한다.

■ 민가와 반가의 관련성

영남지역의 민가 형식으로는 홑집과 겹집 외에도 도토말이집, 까치구멍집 등 여러 가지가 발견되고 있다. 홑집은 부엌, 안방, 마루 등으로 간결하게 구성된 □자형의 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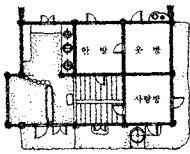
한국주거의 재발견

식으로 지역을 불문하고 전 지역에 산재하였던 것으로 짐작되며, 곁집은 멀리 함경도에서부터 강원도를 거쳐 경북 북부 지역에 이르는 계통을 가진 민가 형식으로 간주되고 있다.³⁾ 도토말이집과 까치구멍집은 안동과 그 주변의 산간 지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두 형식은 일반적으로 一자형의 곁집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평면상 부엌의 위치가 다른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도토말이집은 부엌(마루가 중앙에 함께 설치되기도 함)이 중앙에 위치하고 좌우의 안방과 사랑방을 출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까치구멍집은 보통 봉당과 마루가 중앙에 위치하고 봉당 옆, 안방 아래 부엌을 두었다. 두 가지의 민가형식이 언제부터 지어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퇴계선생이 도산서당 옆에 있는 농운정사를 조영할 당시 도토말이집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최소한 16세기에 도산서당 옆으로 짐작된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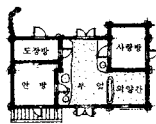
서민의 주거로 알려진 이러한 형식의 주거 중에서도 반가의 의장 수법을 따르는 특별한 사례가 있다. 영덕의 목사공 종택은 제주판관 등을 지낸 무안박씨 박홍장(1558~1598)의 후손들이 사는 집으로 제법 높은 기단을 쌓고 전면과 측면에 쪽마루와 난간을 들렀으며 다른 곁집의 부채보다 굵은 것을 사용하고 있다. 또 봉화의 오고당구택은 측면이 확장된 3×3칸의 규모이며 지붕에는 기와를 얹었다. 사랑방 앞에는 마루방을 두고 측면에 ‘五高堂’이라고 쓴 편액을 걸었는데, ‘오고당’은 조선 말 명의(名義) 박한진이 조대비의 병환을 고치고 고종으로부터 받은 호라고 전한다. 기와를 얹었지만 합각부분을 막지 않아서 까치구멍 본래의 배연 및 환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도토말이집과 까치구멍집은 평면상 차이가 있지만 모두 중앙의 부엌이나 봉당이 주요 동선과 가사노동의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기능적으로 폐쇄적인 ㄱ자형의 안마당과 유사하여 민가, 특히 까치구멍집과 ㄱ자형의 반가를 연관지어 보려는 시도가 있었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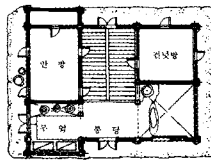
까치구멍집이라는 민가와 ㄱ자형의 반가가 서로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로서 가장 적절한 사례는 청송 청운동 성천택이라고 할 수 있다.⁶⁾ 1.5×1칸 크기의 안마당은 까치구멍집의 봉당보다 약간 크고 지붕을 덮지 않아 마치 중국의 천정(天井)식 주거를 연상케 하며, 까치구멍집의 평면을 전후좌우로 약간 확장한 것과 같이 평면 구성이 거의 같다. 그러나 안대청의 전면 가운데 기둥



봉화 재산면 갈산리 박봉이씨가
(도면출처 : 김일진·김명복)



봉화 소천면 분천리 박용진씨가
(도면출처 : 김일진·김명복)



안동 임하면 마령2동 정인숙씨가
(도면출처 : 김일진·김명복)



영덕 축산면 칠성리 목사공 종택
<곁집>



봉화 소천면 분천리 도토말이집
<도토말이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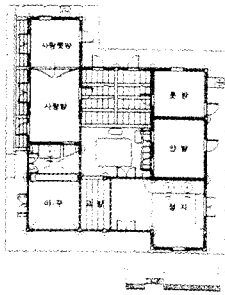


봉화 봉성면 오고당구택
<까치구멍집>

▲ [그림 2] 영남지역의 대표적 민가 형식

- 3) 조성기, 「한국 남부지방의 민가에 관한 연구」, 영남대 박사학위논문, 1985, pp.18~30. 강영환, 「새로 쓴 한국 주거문화의 역사」, 기문당, 2002, pp.254~255에서 재인용
- 4) '지난번에 법련(法蓮)의 생각을 보니, 도토마리집(都吐麻里屋) 제도를 줄게 여기고 있었습니다...(후략)' 「與李大成 戊午」, 퇴계선생문집 권17, 정기철, 「17세기 사람의 '묘침제' 인식과 서원 영건」,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2, pp.266~267에서 재인용
- 5) 신영훈, 「한국의 살림집, 열화당」, 1983, pp.146~147
- 6) 같은 마을의 고수성씨 맥도 성천택의 평면과 거의 유사하나 보존상태가 좋지 못한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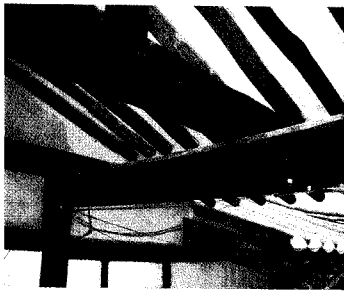
한국주거의 재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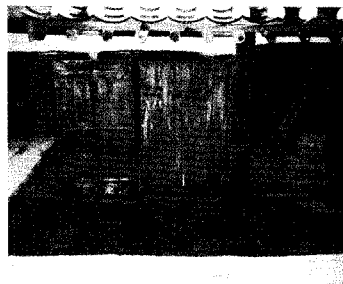
본체 평면도(도면출처 : 김화봉)



안대청



안대청 가구구조



중정

▲ [그림 3] 청송 청운동 성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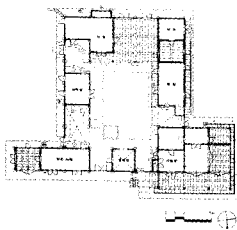
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상부 구조가 특징적이고, 이를 제외하고는 □자형의 가구 구조와 유사하다. □자형의 주거와 같이 사랑채를 전면에 따로 두지 않고 까치구멍집의 상방을 1칸 확장한 모습이다.

한편, 예천의 의성김씨 남약종택, 예천권씨 종택 등은 □자형의 반가로서 인근 지역의 □자형과 같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부엌방(뒷방)을 갖는 특징이 있다. 부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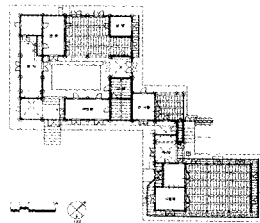
방을 갖는 □자형의 주거는 예천 이외의 지역에서도 발견되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예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이 규모나 민가, 반가의 구분과는 상관없이 예천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인가 민가와 반가의 영향관계를 가정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민가와 반가를 구분하여 연구하려는 경향이 강하였기 때문에 예천지역에서 나타나는 부엌방에 대한 해석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 따라서 민가와 반가를 구분하지 않고 주거라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재조명해 보려는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 지역 단위의 □자형 주거 특성

앞에서 언급한 예천지역 부엌방의 경우 외에도 마을 또는 지역 단위로 주거 특성이 미약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봉화 해저마을의 □자형 주거 중 개암종택, 김진영 가옥, 남호구택은 □자형 또는 툰□자형의 주거로 안마당을 측면에서 진입하게 되어있는데, 전면에 사랑채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자형 주거는 전면으로 출입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사랑채가 전면의 좌우 중 한쪽에 배치되거나 큰 사랑채와 작은 사랑채가 출입문을 사이에 두고 양분되기도 한다. 그러나 봉화의 일부 □자형 주거는 사랑채가 길게 전면에 배치되기 때문에 출입문을 측면에 둘 수밖에 없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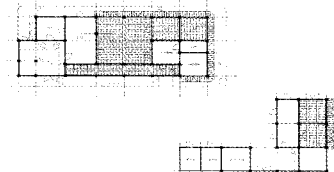
의성김씨 남약종택
(도면출처 : 김화봉)



예천권씨 종택
(도면출처 : 김화봉)



예천 보문면 긴방리
백상호씨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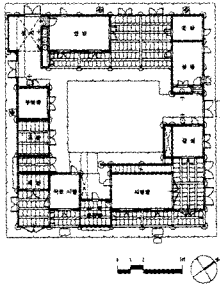


예천 용문면 두천리
손윤원씨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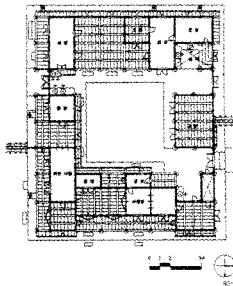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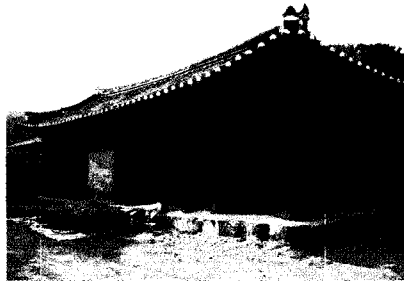
▲ [그림 4] 예천지역 주거에서 보이는 부엌방

7) 주거건축 뿐만 아니라 재실건축의 주사 평면에서도 부엌방이 나타나고 있다. 유기원·김성우, 「경북 예천군 재실건축의 유형과 평면 특성」,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3권 10호, 2007.10 참조

한국주거의 재발견



해저 김건영 가옥 평면도(도면출처 : 김화봉) 및 사랑채 전면부 사진



춘양 의성리 권진사택 평면도(도면출처 : 김화봉) 및 사랑채 전면부 사진



▲ [그림 5] 봉화지역의 □자형 주거

그러나 실제 동선은 해저 김건영 가옥에서와 같이 분리되기도 한다. 이러한 특성은 봉화지역의 춘양, 법진, 문단 등에서도 일부 보인다. 이러한 특징이 봉화지역에서 분산되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대부분 19세기에 건립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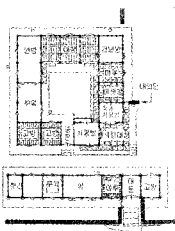
경주 양동마을 □자형 주거에서도 사랑채의 위치는 주목할 만하다. 양동마을에서 비교적 오래된 주거로 알려진 서백당과 관가정은 사랑채가 전면에 면해 있는데 반해 무침당, 수졸당, 사호당고택, 상춘헌, 이향정, 두곡고택 등은 상

방(건넌방) 방향의 측면에 위치한다. 그 중에서 사호당고택은 안대청과 나란하게 돌출시켰다. 낙선당도 안대청과 나란히 배치되는 것은 같지만 사랑채가 반대로 안방 방향에 위치한다. 서백당과 관가정은 타 지역의 □자형 주거 사랑채 배치방식과 유사하지만 그 외의 주거들은 사랑채가 측면에 위치하기 때문에 전면에 위치한 건물은 주로 부속채의 성격을 갖게 된다. 경주손씨의 서백당, 관가정, 낙선당을 제외한 나머지는 여주이씨의 주거들이어서 문중에 따른 주거 특성으로 볼 수도 있지만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다른 지역과 달리 측면에 사랑채가 위치한 □자형의 주거가 양동마을에서 다수 보이는 것은 마을 단위의 지역적 특성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적 특성은 반가보다 민가에서 주로 다루어져 왔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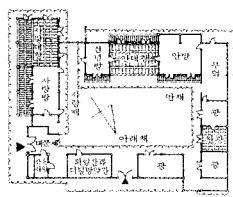
반가에서도 이러한 관점의 도입이 필요하다 판단된다.

■ □자형 주거의 높은 기단과 기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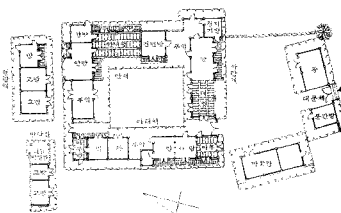
폐쇄적인 평면 특성 외에 영남지역 □자형의 주거 특성을 말하자면 수직적인 특성, 다시 말해 기단과 기둥이 대체적으로 높다는 사실이다. 같은 완만한 평지에 있는 □자형의 주거라도 전남 구례의 운조루나 경남 함양의 일두고택보다 경북 안동의 양진당 기단이 더 높다. 경북 봉화의 법전강씨 종택과 같이 경사지에 있다면 그 차이는 더욱 두드러진다. 기단이 높기 때문에 안대청에 서 있으면 전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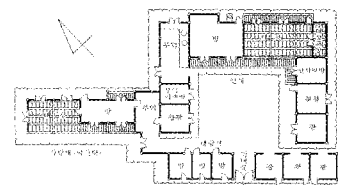
서백당
(도면출처 : 강영환)



수졸당(도면출처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두곡고택
(도면출처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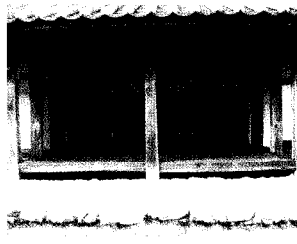
낙선당
(도면출처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그림 6] 경주 양동마을의 □자형 주거

한국주거의 재발견



전남 구례 운조루



경남 함양 일두고택



경북 안동 양진당



경북 봉화 법전강씨 종택

▲ [그림 7] 안대청의 기단과 기둥 높이

문간채 용마루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기단이 높으면서도 기둥이 높기 때문에 폐쇄적인 □자형 안마당에서 자칫 잃어버릴 수 있는 심리적 답답함이나 일조·통풍 조건을 완화시켜준다. 건축주의 권위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만 해석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러한 주거 환경 탓인지 20세기에 들어서 일본의 영향을 받은 2층 한옥이 서울과 같은 도시가 아닌 영남의 한적한 곳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⁸⁾ 기존의 사랑채 앞에 덧달아낸 봉화 송석헌의 영풍루는 20세기 초에 지어진 것으로⁹⁾ 높은 사랑채 기단 때문에 사랑채와 누의 2층을 계단식 복도로 연결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역시 일제시대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안동 녹전면 신평리의 2층 한옥은 주거 전체를 2층으로 건립하였고, 영주 부석면 용암리의 주거는 □자형의 문간채 일부를 2층으로 개조하여 정자와 같은 기능으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2층 한옥을 주거의 본

채, 누각, 문간채 등 여러 공간에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 독창적인 □자형 주거

영남지역의 주거 중에는 쉽게 이해할 수 없거나 기발한 아이디어로 당혹스럽게 만드는 독창적인 주거들이 있다. 경주 양동마을의 향단이나 안동 입청각, 의성김씨 종택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인 역사적 근거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당시 건축주의 조영의도를 밝히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동 학봉종택 소장 가도(家圖)는 당시 건축가의 조영의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귀한 자료로 생각된다.

안동 학봉종택 가도는 18세기 종택 이건 무렵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도면으로 총4장이 제작되었다. 4장이 제작된 것은 종택의 상황을 기록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이건을 하기 위하여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¹⁰⁾ 4장의 가도와 현존하는 학봉종택을 비교 분석해 본 결과 몇 가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 첫



봉화 송석헌 사랑채와 영풍루



봉화 송석헌 영풍루



안동 녹전면 신평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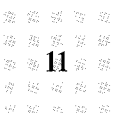
경북 영주 부석면 용암리 화담

▲ [그림 8] 안대청의 기단과 기둥 높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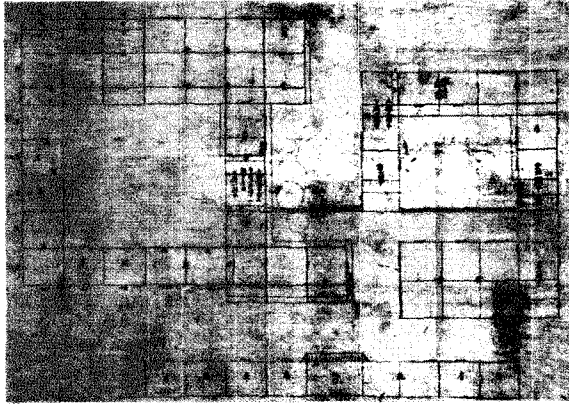
8) 이호열·이성태·우경원, 「근대기 2층 한옥의 구조 특성-경북 성주 만산택과 배리택을 중심으로-」, 한국건축역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08.5 참조

9) 김광언·김홍식, 『송석헌』, 민속원, 2008, pp.43~45

10) 유기원·김기주, 「학봉종택 가도의 분석을 통한 18세기 종택의 이건계획 및 건축적 특성」, 건축역사연구 제64호, 2009.6 참조



한국주거의 재발견



▲ [그림 9] 안동 학봉종택 가도

책은 건축주로서 사대부는 현대의 건축가들 못지않게 창의적이면서도 세부적인 계획에 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안채가 안마당에 접하는 칸수가 4칸이 넘지 않으면서도 6칸 넓이의 안대청을 두기 위해 상방 부분을 돌출시키려던 창의적인 시도가 있었으며, 상부 다락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가도에 반영되었을 뿐 아니라 창호의 종류와 위치, 크기를 구분하여 가도를 제작한 점 등은 당시 사대부가 주거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둘째는 당시 사대부들의 주요 관심사였던 주자가례에 따라 기존의 주거 형식을 합리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조영의도가 가도 제작에 반영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들은 문헌자료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해주는 동시에 현대인이 전통주거를 피상적이고 물리적인 시각에서 이해하려는 태도를 반성하게 한다.

■ 글을 마치며...

한국주거사에 있어서 영남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 않다. 현존하는 유구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각 기관과 문중에서 알게 모르게 소장하고 있는 문헌자료의 측면에서도 그렇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영남지역이 소중하게 다가오는 것은 유구나 문헌이 아닌, 전통주거에서 생활하며 선조들의 뜻을 지키려는 ‘할배’, ‘할매’가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전통 방식 그대로 각종 제사를 행하고, 시제가 타치면 전국 각지의 후손들이 모여든다. 땀으로 수몰된 조

상의 흔적들을 지금에서라도 복원하기 위해 분주하다. 그러나 이 지역도 현대화라는 큰 흐름은 거스를 수가 없어 몇 달 전에 빈 ‘할배’가 돌아가시고 집은 텅하니 비어있기 일쑤다. 마음이 조금해진다.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논의되던 수준에 몇 가지 개인적인 경험을 보태어 단편적인 나열만 늘어놓은 점 널리 양해를 구한다.



참고문헌

1. 강영환, 『새로 쓴 한국 주거문화의 역사』, 기문당, 2002
2. 김광언·김홍식, 『송석헌』, 민속원, 2008
3. 김기주, 「조선중기 이후 가례서와 반가에서의 행례공간 비교연구」, 민속학연구 제12호, 2003.6.
4. 김일진, 『옛집에 담긴 생각』, (주)청구, 1996
5. 김일진·김명복, 「경북지방의 곽집에 관한 연구 봉화군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6권 5호, 1990.10
6. 김화봉, 「조선시대 인등문화권의 ‘뜰집’에 관한 연구」,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1999.2
7. 신영훈, 『한국의 살림집 열화당』, 1983
8. 유기원·김기주, 「학봉종택 가도의 분석을 통한 18세기 종택의 이건축적 및 건축적 특성」, 건축역사연구 제64호, 2009.6
9. 유기원·김성우, 「경북 예천군 재실건축의 유형과 평면 특성」,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3권 10호, 2007.10
10. 이호열·이성태·우경원, 「근대기 2층 한옥의 구조 특성-경북 상주 만산택과 배리택을 중심으로」, 한국건축역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08.5
11. 정가철, 「17세기 사림의 ‘묘침제’ 인식과 서원 영건」,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9.2
1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민족문화대백과사전』, 웅진, 1991
13.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